

제 1 교시

국어 영역 (B형)

[1~3] 다음은 수업 중 학생들이 실시한 반대 신문식 토론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사회자: 요즘 대체 휴일 제도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대체 휴일 제도는 어떤 휴일이 다른 휴일과 겹치면 휴일이 아닌 날을 더 쉬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대체 휴일 제도에 대해 노동계, 재계,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대체 휴일 제도 법안 도입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찬성 측 입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1: 우리나라 1인당 연간 노동시간은 2,090시간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다른 국가인 미국의 경우에는 1,787시간, 일본은 1,728시간, 독일은 1,413시간인 것에 비해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은 이 국가들보다 떨어진다고 합니다. 장시간 근무를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죠. 충분히 쉬어야 일의 집중력이 올라가고, 창의력도 생깁니다. 일의 능률을 높이고, 근로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체 휴일 제도가 도입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체 휴일 제도는 우리나라 헌법 제10조의 행복 추구권에도 부합하는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산업은 수출 중심의 산업 구조로 이는 외부 환경 변화에 취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국내 소비를 늘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휴일이 늘어나면서 여가, 문화 활동과 관련한 소비가 증가하고, 새로운 서비스 산업이 창출되어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반대 2: 반대 측 확인 질문하겠습니다. 대체 휴일 제도의 도입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셨죠? 재계에서는 경제적 손실이 32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찬성 1: 네, 재계의 주장은 문화 및 관광 산업 등의 서비스 산업이 발전되는 내수 진작 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반대 1: 반대 측 입론하겠습니다. 저희는 대체 휴일 제도 도입에 부정적입니다. 2013년부터 한글날이 공휴일에 추가되면서 우리나라 공휴일은 노동절을 포함해 연간 16일에 달합니다. 이는 OECD의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6일이나 많은 것입니다. 또한 OECD 국가들은 우리나라와 달리 대부분 공휴일이 무급 휴일입니다. 우리나라는 공휴일에 일할 경우 휴일 근무 수당까지 포함해 임금의 250~350%를 지급합니다. 대체 휴일 제도가 도입되면 인건비도 그만큼 늘어나 기업의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만 늘게 됩니다. 그리고 대체 휴일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실제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대기업 노동자로 한정될 것이며, 휴일도 근무하는 자영업자들에게는 혜택이 없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찬성 2: 찬성 측 확인 질문하겠습니다. (㉠)

1. ‘찬성 1’의 입론에 나타나 있지 않은 것은?
- ① 논제와 관련한 기대 효과를 드러내고 있다.
 - ② 논제와 관련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 ③ 논제와 관련한 법 조항을 제시하여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 ④ 논제와 관련된 용어의 개념을 언급하며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 ⑤ 논제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2. <보기>는 위 토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수집한 자료이다. 이를 토론에 활용할 수 있는 입장과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경기 침체 때문에 여가 비용 지출이 크게 줄고 있고, 국민 대부분은 적극적 외부 활동 대신 텔레비전 시청이나 낮잠과 산책으로 여가를 보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에 따르면, 월 평균 여가 비용은 2010년 16만 8천원에서 2012년 12만 5천 원으로 줄었으며, 여가 활동 유형도 휴식이 59.3%로 2년 전 36.2%보다 크게 늘었다. 반면 여가 활동으로 취미 활동과 오락을 하는 사람은 25.4%로 대폭 감소했다.

- 2012년 국민 여가 활동 조사 -

	입장	활용 방안
①	찬성	휴일 근무 수당으로 인해 기업의 비용 부담이 증가한다는 반대 측 주장에 대한 논박 근거로 활용할 수 있겠군.
②	찬성	대체 휴일 제도 도입으로 인해 문화 및 관광 산업 등의 다양한 서비스 산업이 창출될 수 있다는 주장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겠군.
③	반대	대체 휴일 제도의 혜택이 대기업 노동자에게 한정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겠군.
④	반대	대체 휴일 제도가 행복 추구권을 보장하는 것이라는 찬성 측의 주장을 반박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겠군.
⑤	반대	대체 휴일 제도 도입이 여가, 문화 활동과 관련한 소비의 증가로 이어진다는 찬성 측 주장에 대한 논박 근거로 활용할 수 있겠군.

3. ㉠에 들어갈 수 있는 확인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휴식을 취한다고 일의 능률이 오른다고 할 수 있을까요?
 - ② 공휴일이 많다고 반드시 노동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죠?
 - ③ OECD의 다른 국가들의 노동시간이 우리나라보다 적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④ 내수 진작 효과를 고려한다면 자영업자들에게 혜택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 ⑤ 대체 휴일 제도를 대신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4~5] 다음은 선생님과 영희의 대화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영 희: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응, 영희로구나. 점심은 먹었니?
 영 희: (어두운 표정으로) 아, 네.....
 선생님: 응? 무슨 일 있니? 표정이 어둡네. 기운도 없는 것 같고.
 영 희: 아, 아니에요. ㉠아무 일도 없어요.
 선생님: 늘 밝고 명랑하던 영희가 웬일로 이렇게 기운이 없을까? 어려워하지 말고 편하게 말해 보렴.
 영 희: 이번 국어 시험 성적이 엉망이거든요.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 성적이 안 나와서 속상해요.
 선생님: 국어 시험 성적이 좋지 않다고?
 영 희: 네, 특히 문법 부분은 거의 다 틀렸어요. 문법을 정말 열심히 했는데.....
 선생님: ㉡그랬구나. 문법이 어려운 부분이긴 해. 처음에 설명을 읽어 보면 다 알 것 같은데, 막상 그걸 응용해 보면 어려워지지. 틀린 문제 생각해 아직도 속상하니? 영희는 매사 꼼꼼한 학생이니까 틀린 문제를 다시 한 번 본다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거야.
 영 희: 네, 선생님. ㉢항상 저를 믿어주셔서 마음이 든든해요. 하나하나 차분히 생각해 보면 풀 수 있었던 문제인데, 문법은 무조건 어렵다는 선입견 때문에 틀린 것도 있고, 실수로 문제를 잘못 읽어서 틀린 것도 있는데 아직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선생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죠? 우리 학교에서 문법 수업 하면 선생님이시잖아요.
 선생님: 그래? 몇 번 문제가 그렇게 어려웠는데?
 영 희: (시험지를 꺼내며) ㉤여기 이 문제요. 선생님, 이 문제 진짜 어려워요.
 선생님: 음운 현상과 관련된 문제의 해답은 이미 네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
 영 희: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선생님: 잘 들어봐. 내가 설명해 줄게.

4. 위 대화에서 ㉠~㉤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에서 구체적인 말하기가 구두 언어의 특성임을 알 수 있다.
- ② ㉡에서 구두 언어는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상호 작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에서 대화 참여자 간의 친밀한 관계가 의사소통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에서 대화 참여자의 전문성이 전달 내용의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에서는 지시어를 통해 대화가 동일한 시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위 대화에서 ‘선생님’이 사용한 의사소통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영희의 비언어적 표현을 고려하며 듣는다.
- ② 질문을 하면서 영희가 대화에 참여하도록 이끈다.
- ③ 칭찬을 하면서 영희가 말을 이어가도록 격려한다.
- ④ 영희의 말하기 방식이 합리적인지 평가하며 듣는다.
- ⑤ 영희의 말에 호응해 줌으로써 공감하며 듣고 있음을 보여준다.

6. ㉠~㉤ 중, 수정한 자기 소개서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자기 소개서 항목]

- 학창 시절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을 기술하고, 이를 통해 무엇을 얻었는지 서술하시오.

[수정 전]

나는 1학년 교내 합창 대회 때 학급의 협력을 위해 노력한 적이 있다. 합창 대회는 항상 가을 학교 축제 때 열리는데 무척 재미있다. 학급 운영에 있어 친구 간의 우정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친구들 사이의 갈등을 중재하기 위한 방안을 숙고하였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 말도 있듯이 친구의 갈등 상황에서 문제점을 분석하고 화해를 하는 데 건인 역할을 했다. 그 결과 학급은 단합했다. 따라서 나는 진정한 리더의 자격을 갖췄다고 본다.

[선생님의 조언]

- 자신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좋겠어. ㉠
- 어려운 한자어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
- 지원 분야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드러냈으면 좋겠어. ㉢
- 읽는 이를 고려하여 격식에 맞게 글을 썼으면 좋겠어. ... ㉣
- 요구하는 내용과 관련이 없는 내용은 삭제하면 좋겠어. · ㉤

[수정 후]

제 기억에 가장 남는 일은 1학년 때 있었던 교내 합창 대회입니다. 합창 대회는 항상 가을 학교 축제 때 열리는데 무척 재미있습니다. 저는 학급에서 지휘자를 맡았는데,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두 친구가 같은 파트를 맡게 되었고, 두 친구의 화음이 맞지 않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민 끝에 각자의 노래를 녹음하고 그 친구들에게 들려준 후 생각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서로 자신의 노래가 낫다고 다투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노래를 동시에 들려주자, 서로 다른 음으로 노래하는 것을 듣고 두 친구는 당황하다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 후 두 친구는 서로를 배려하며 열심히 연습에 참여하였고, 결국 우리 반은 1등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서로에 대한 배려를 통해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간에 갈등이 생겼을 때 교사는 갈등의 원인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려는 태도가 필요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부족하지만 저의 이런 경험이 훗날 좋은 선생님이 되는 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7~8] <보기 1>은 보고서를 쓰려는 학생의 생각이고, <보기 2>는 활용하려는 자료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 <보기 1> —————

보고서의 주제는 최근 유행하고 있는 ‘힐링(healing)’으로 정했다. 힐링 열풍이 소비 형태에 머무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최근 신문 기사에 착안했다. 나는 힐링 열풍의 실태 및 원인을 찾고 힐링이 상업적 목적에 의해 변질되고 있는 문제점을 찾는 데 초점을 맞추어 글을 쓰기로 했다. 그러려면 먼저 힐링 열풍이 일어나게 된 이유, 사회적 배경과 관련된 통계 자료를 제시하여 실태를 드러내야겠다. 또한 힐링 활동의 내용과 참여한 사람들의 만족 여부에 대한 설문 조사, 힐링 열풍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이 제시된 자료를 바탕으로 힐링 열풍의 원인과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분석해야겠다. 이를 바탕으로 힐링이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 <보기 2> —————

(가) 현황 제시

연도(년)	행복 지수 (점)	정신상담 인구 (백분율)	힐링 서적 판매 (백분율)
2008	6.0	2.0	1.0
2009	5.5	2.5	1.5
2010	5.2	3.0	2.0
2011	4.8	3.5	3.0
2012	4.5	15.0	10.0

(나) 힐링 관련 브랜드 출원 건수 (단위: 건)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출원 건수	26	40	65	72	86

(다) 힐링 활동의 참여율과 만족도 (단위: %)

구분		참여율	참여자 만족도
소비 중심 활동	여행	21.2	31.3
	문화 예술 스포츠 관람	45.6	30.8
	레저 스포츠 활동	13.8	20.6
창작적 취미		7.9	70.1
봉사 활동		1.4	60.3
휴식		10.1	60.9
합계		100	

7. <보기 1>과 글의 성격을 고려하여 글쓰기를 계획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글의 목적	○ 우리 사회 힐링 열풍의 원인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바람직한 의미의 힐링을 모색함. ①
수집 자료	○ 힐링 관련 서적 판매 및 정신 상담 인구에 대한 통계 자료 ○ 행복 지수에 대한 통계 자료 ○ 힐링이 필요한 이유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 힐링 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한 설문 조사 ○ 힐링 열풍에 대한 전문가의 칼럼 ②
내용 구성 방향	○ 서론: 힐링 열풍의 사례를 제시한 뒤, 논의의 필요성을 언급함. ③ ○ 본론 1. 힐링 열풍과 경제 발전의 상관관계를 제시함. ④ 2. 힐링 열풍이 일어나는 원인을 분석함. 3. 힐링 열풍이 상업화되는 현상을 제시함. 4. 힐링 열풍의 문제점을 지적함. ⑤ 5. 바람직한 힐링의 의미를 밝힘. ○ 결론: 내용을 종합하며 바람직한 힐링의 방향을 제시함.

8. <보기 2>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① (가)와 (나)를 해석할 때에는 변화의 추이에 주목해야 한다.

② (가)는 힐링이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밝힌 후에야 논거로 사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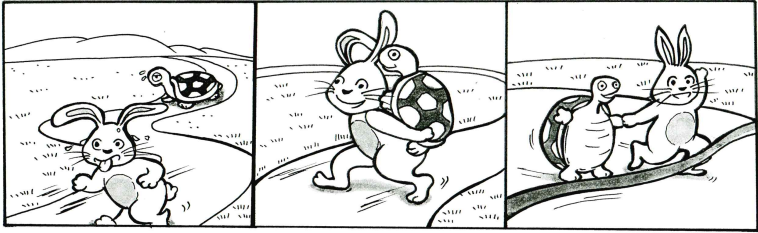
③ (나)는 힐링 열풍이 상업성을 띠는 실태와 관련 있음을 드러내는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다)에서 참여율이 10% 미만인 항목들은 글의 주제와 관련이 없으므로 논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⑤ (다)를 힐링 열풍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논거로 활용할 때는 소비 중심 힐링 활동의 만족도가 낮은 이유가 보완되어야 한다.

[9~10]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작문 과제 다음 만화에 담긴 의미를 유추하여 생활글로 써 보자.



과제 수행을 위한 기록

오늘 글쓰기 과제는 ‘만화에 담긴 의미를 생활글로 표현하기’였다. 처음에는 ‘토끼와 거북이’의 원작 내용을 잘 알고 있어서 과제가 쉬울 것 같았으나, 이 우화를 패러디하여 새로운 의미를 이끌어 낸 만화를 활용해서 글을 쓰는 것이 막막하게 느껴졌다. 고민 끝에 반 친구들과 함께 시험공부를 했던 ‘학습 멘토링 활동’을 글감으로 정하여 과제를 완성하였다.

학생의 글 공동체 정신을 일깨워 준 학습 멘토링

처음과 달리 서로 손을 잡고 웃으며 결승선을 통과하는 토끼와 거북이의 모습을 보며, 지난 시험 기간 때 친구들과 함께 했던 학습 멘토링 활동 경험이 떠올랐다. 나는 국어 성적이, 친구는 수학 성적이 부진했는데, 시험 준비를 할 때마다 이 과목들을 공부하느라 고생하곤 하였다. ㉠따라서 가끔은 공부로 인한 스트레스를 풀어주어야 한다. 그래서 시험 기간에 서로에게 부족한 과목을 ㉡가리켜 주기로 하였다. 처음에는 모르는 내용이 있어도 질문하지 않고 이해한 척했고, 그러다 보니 학습의 효율이 높지 않았다. ㉢또한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하자고 마음을 굳게 먹고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수시로 질문을 하며 공부하였다. ㉣그 결과 나는 국어 성적뿐만 아니라 수학 성적도 크게 향상되었고 친구도 마찬가지였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혼자 가는 걸음보다는 ㉤상호 서로 협력하며 함께 가는 걸음이 소중하고 의미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9. ‘과제 수행을 위한 기록’에 비추어 볼 때, 학생이 글을 쓰는 과정에서 활용한 주요 전략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중심 내용을 항목별로 나누어 전개한다.
- ② 실제 경험과 관련지어 주제를 구체화한다.
- ③ 설의적 표현을 활용하여 독자의 관심을 유도한다.
- ④ 감각적 어휘를 활용하여 글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표현한다.
- ⑤ 여러 가지 자료를 활용하여 글의 내용을 입체적으로 전달한다.

10. ㉠~㉤을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통일성을 깨뜨리는 문장이므로 삭제한다.
- ② ㉡은 단어의 선택이 적절하지 않으므로 ‘가르쳐’로 바꾼다.
- ③ ㉢은 앞 문장과 의미 관계를 고려하여 ‘그래서’로 바꾼다.
- ④ ㉣은 글의 일관성을 위해 바로 앞 문장과 위치를 바꾼다.
- ⑤ ㉤은 뒤에 나오는 단어와 의미가 중복되므로 삭제한다.

11. <보기 1>의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예를 <보기 2>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1>

두 음운이 결합할 때 어느 한 음운이 없어지는 현상을 음운의 탈락이라 한다. 끝소리 ‘ㅎ’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나 접미사와 결합하여 탈락하는 경우나 음절의 끝에 두 개의 자음이 올 때 이 중에서 한 자음이 탈락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보기 2>

내일은 소풍 가는 날, 비 오지 ㉠않기를 바라며 잠자리에 들었다. 잔디밭을 ㉡밟고 친구들과 ㉢같이 즐겁게 놀며 ㉣멋진 경치를 볼 생각에 기분이 ㉤좋아서 잠도 오지 않았다.

- ① ㉠, ㉡ ② ㉠, ㉢ ③ ㉡, ㉣
- ④ ㉢, ㉤ ⑤ ㉣, ㉤

12. <보기>의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보 기>

‘막일’은 [망닐]로 발음된다. 이는 표준 발음법 제18항과 제29항이 적용된 것이다.

제18항

받침 ‘ㄱ(ㄱ, ㅋ, ㆁ, ㄷ), ㄷ(ㄷ, ㅌ, ㄴ, ㄹ, ㅍ, ㅊ, ㅌ, ㅎ), ㄴ(ㄴ, ㄹ, ㅁ, ㅂ)’은 ‘ㄴ, ㄹ’ 앞에서 [ㅇ, ㄴ, ㄹ]으로 발음한다.

제29항

합성어 및 파생어에서, 앞 단어나 접두사의 끝이 자음이 고 뒤 단어나 접미사의 첫음절이 ‘이, 야, 여, 요, 유’인 경우에는, ‘ㄴ’ 음을 첨가하여 [니, 나, 너, 노, 뉴]로 발음한다.

이 과정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으며, 이와 같은 예로는 ㉠ 을/를 들 수 있다.

막일	→	[막닐]	→	[망닐]
⋮		⋮		⋮
제29항		제18항		

- ① 식용유 ② 색연필 ③ 솜이불 ④ 맨입 ⑤ 국물

[17~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본질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서양 철학의 핵심적 질문이다. 탈레스가 세계의 본질을 ‘물’이라고 이야기했을 때부터 서양 철학은 거의 모든 것들에 대해 불변하는 측면과 그렇지 않은 측면을 탐구하기 시작했다. 본질은 어떤 사물의 불변하는 측면 혹은 그 사물을 다른 사물과 구별시켜 주는 특성을 의미하는데, ㉠본질주의자는 이러한 사물 본연의 핵심적인 측면을 중시한다. 예를 들어 책상의 본질적 기능이 책을 놓고 보는 것이라면, 책상에서 밥을 먹는 것은 비본질적 행위이고 이러한 비본질적 행위는 잘못된 것이라고 본다.

그런데 본질주의자들이 강조하는 사물의 본질이란 사실 사후적으로 구성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책상 자체가 원래 ‘책을 놓고 보는 것’이라는 본질을 미리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인간이 책상에서 책을 보거나 글을 쓰면서, 즉 책상에 대해 인간이 경험적으로 행동을 해 보고 난 후에 책상의 본질을 그렇게 규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비트겐슈타인의 말을 인용하여 책상의 본질에 대해 생각해 보자. 비트겐슈타인은 『철학적 탐구』라는 저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이래해.’라고 나는 되풀이해서 중얼거린다. 만일 내가 나의 시선을 이 사실에다 그저 아주 명확하게 맞출 수만 있다면, 나는 틀림없이 사물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라고 말했다. 책상을 보고서 책상은 이렇게 사용되어야 한다고 되풀이해서 중얼거리는 것은 사후적 구성의 논리가 작동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어떤 사물의 본질을 파악한 것만 같은 느낌은 사후적 구성의 반복을 통해 책상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다고 착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비트겐슈타인은 또한 그의 저서에서 ‘본질적이니 비본질적이니 하는 것들이 언제나 명료하게 분리되어 있지는 않다.’라고 말한다. 램프의 본질적 기능은 빛을 내는 것이지만 방을 장식하는 기능을 할 수도 있다. 빛을 내는 것이 램프의 본질적 기능이라고 믿으며 램프의 사용 목적에 편집증적으로 집착할 경우, 자신이 믿고 있는 본질을 여기는 타자에 대해 보수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다.

파이프를 그린 화가 마그리트의 「이미지의 배반」이라는 그림을 예로 들어보자. 마그리트는 파이프를 닮은 형상을 그리고 그 아래에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라고 써 놓았다. 사람들은 그동안의 경험에 의해 그림 속 형상을 파이프로 인식할 것이지만,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라는 글자는 사람들의 인식을 배반하게 만든다. 이 그림을 본질에 대한 문제와 연결해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본질이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적 구성에 의해 획득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결국 본질주의자들이 강조한 사물의 본질은 단지 인간의 가치가 투영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

17. 윗글을 통해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사물의 본질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 ② 사물의 본질이 사물의 속성을 결정한다.
- ③ 사물의 본질은 사용 목적에 따라 정의된다.
- ④ 사물의 본질과 비본질은 명료하게 구분된다.
- ⑤ 본질과 비본질을 모두 경험한 후에야 본질을 파악할 수 있다.

18. <보기>에 대한 ㉠과 ㉡의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동양의 불교 사상에서는 오래전부터 공(空)을 이야기해 왔다. 불교에서 본질이란 것은 ‘자기동일성’을 의미하는 ‘자성(自性)’이라고 불린다. 이런 자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다시 말해 ‘무자성’이야말로 불교에서 가장 강조해 온 ‘공’의 핵심적인 의미이다. 불교의 공은 본질을 맹신하는 집착을 치유하기 위해 제안된 개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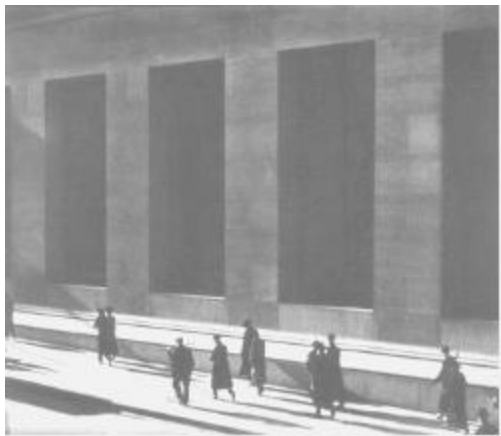
- ① ㉠: <보기>의 ‘자성’은 인간 개인이 생각하는 가치가 투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군.
- ② ㉠: <보기>의 ‘자기동일성’은 오랜 수양을 통해 획득할 수 있는 후천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군.
- ③ ㉡: <보기>의 본질에 대한 ‘맹신’은 사후적 구성의 반복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군.
- ④ ㉡: <보기>의 ‘공’은 경험적 행동을 통해 얻은 본질의 가치를 강조하는 것이라 할 수 있군.
- ⑤ ㉡: <보기>의 ‘무자성’의 경지는 대상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경지라고 할 수 있군.

[19~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9세기 초에 등장한 사진은 2차원 평면 위에 현실을 재현한다는 점에서 회화와 비슷하지만 광학과 화학 등 기술적 특성을 지니기에 예술과 기술의 모호한 경계선상에 위치하였다. 처음의 사진은 회화의 보조적 역할을 하는 정도로 인식되었으나, 19세기 후반에 ‘픽토리얼리즘’이 등장하면서 사진으로서 독자적 예술성을 추구하려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픽토리얼리즘은 사진도 회화와 같은 예술적 표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출발하였다. 픽토리얼리즘을 추구하는 작가들은 사진의 복제성을 포기하고 회화의 속성인 수공적 방법을 끌어들이어 예술적 가치를 높이려고 노력했다. 회화적 구현의 방식으로 사진의 초점을 흐리게 하거나 인화 방식을 다양하게 하는 등의 방식을 사용했던 것이다.

20세기 초, 사진이 갖는 기술적 특성인 기록성에 더 중점을 두고자 했던 ㉡‘스트레이트 포토’가 등장한다. ‘직접적인 사진’ 또는 ‘순수 사진’으로 불리는 스트레이트 포토를 추구하는 작가는 앵글이나 셔터, 프레임 등의 사진이 갖는 고유한 기능에 치중하려 했다. 즉, 사진에 어떠한 조작도 가하지 않고, 작가의 의도를 표현하려 했다. 미국의 폴 스트랜드는 그의 작품 「월 스트리트, 뉴욕」



에서 프레임의 설정만으로 자본주의의 부정적 속성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대형의 직사각형 창이 있는 육중한 석조 건물과 출근하는 왜소한 사람들의 모습의 대비만을 프레임에 넣어 거대한 자본의 논리에 작아지는 사람들을 표현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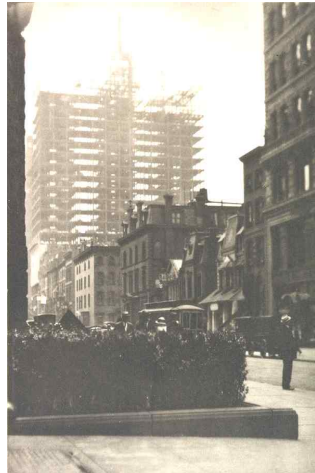
20세기 후반에 들어오면서 디지털 기술을 통해 보다 다양한 표현이 가능해짐으로써 ㉢‘디지털 픽토리얼리즘’이 등장하게 된다. 디지털 기술은 이미지의 합성 및 변조와 실재하지 않는 대상의 구현 등 다양한 표현을 가능하게 했고, 이러한 가능성으로 인해 작가들은 자신들의 주제 의식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단순히 보자면 픽토리얼리즘과 차이가 없어 보이나, 작가의 주제 의식을 보다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새로운 예술적 가능성을 발견했다고도 할 수 있다.

19. 윗글의 내용 전개 방식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사진과 관련한 예술적 경향을 통시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 ② 사진의 발전 과정에 대해 과학 기술 변화에 초점을 맞춰 고찰하고 있다.
- ③ 사진의 예술적 가치를 다른 예술과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소개하고 있다.
- ④ 예술적 사진과 그렇지 않은 사진의 개념을 특정한 준거를 바탕으로 설명하고 있다.
- ⑤ 사진을 바라보는 대비되는 두 견해를 제시하고, 이를 절충한 새로운 예술적 경향을 소개하고 있다.

20.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감상하고자 할 때, 고려해야 할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이 사진은 미국의 사진작가 스티글리츠의 「오래된, 그리고 새로운 뉴욕」이다. 그는 뉴욕의 옛 건물과 새로 짓는 현대적 건물을 사진에 그대로 담았다. 이 사진은 한 시대에 공존하는 전통과 테크놀로지의 대비를 통해 빠르게 변모하는 미국 사회의 단면을 보여준다. 전면의 낡은 벽돌로 지어진 건물은 ‘오래된 뉴욕’을, 후면에 있는 수직적 상승감이 강조된 철골 구조는 ‘새로운 뉴욕’을 상징한다.

- ① 명암이 주는 효과에 주목하여 당대 사진의 표현 기법을 살핀다.
- ② 초점을 흐리게 하는 기술에 주목하여 작품이 지니는 형식적 실험성을 살핀다.
- ③ 대상을 왜곡하고 변조하는 디지털 기술에 주목하여 작가의 표현 의도를 살핀다.
- ④ 작가가 작품을 발표한 시기에 주목하여 작품이 가지는 시대사적 의의를 살핀다.
- ⑤ 프레임에 담긴 대비적 구도에 주목하여 작가가 표현하고자 했던 의미를 살핀다.

21.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은 사진의 기록성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 ② ㉠과 ㉢은 사진의 복제성을 이용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 ③ ㉠과 ㉢은 사진의 사실적 재현성에서 벗어나려 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 ④ ㉡과 ㉢은 합성된 이미지를 사진에 표현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 ⑤ ㉡과 ㉢은 회화적 속성을 중시하여 사진을 찍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22~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경제 주체들은 시장을 통해 필요한 재화를 얻거나 제공하며, 재화가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한다. 그러나 시장을 통한 재화의 배분이 어렵거나 시장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 때, 시장 제도를 적절히 설계하면 경제 주체들의 이익을 최대한 충족시키면서 재화를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데, 이를 ‘시장 설계’라고 한다.

① 시장 설계의 방법은 양방향 매칭(two-sided matching)과 단방향 매칭(one-sided matching)이 있다. 양방향 매칭은 두 집합의 경제 주체들을 서로에 대해 갖고 있는 선호도를 최대한 배려하여 쌍으로 맺어주는 것이다. 그리고 단방향 매칭은 경제 주체들이 지니고 있는 재화를 재분배하여 더 선호하는 재화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결국 양방향 매칭은 경제 주체들 간의 매칭을, 단방향 매칭은 경제 주체에게 재화를 배분하는 매칭을 찾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양방향 매칭에서는 잠정 수락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시장을 설계한다.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처음 제안자는 자신이 가장 선호하는 수락자에게 제안을 한다. 이 때, 1명에게만 제안을 받은 수락자는 무조건 그 제안자와 잠정적으로 매칭이 되고, 2명 이상으로부터 제안을 받은 수락자는 자신이 가장 선호하는 제안자를 선택하여 잠정적으로 매칭이 된다. 그리고 잠정적으로 매칭이 되지 않은 제안자는 자신이 제안하지 않은 수락자 중에서 가장 선호하는 사람에게 제안을 한다. 한편 각 수락자는 잠정적으로 매칭이 되었던 제안자와 새롭게 제안한 제안자 중에서 가장 선호하는 사람을 골라 잠정적으로 매칭이 된다. 제안자 집합의 구성원들이 수락자 집합의 구성원들과 일대일로 모두 매칭이 될 때까지 이 과정이 반복되며, 매칭에 참가한 구성원은 임의로 매칭을 종료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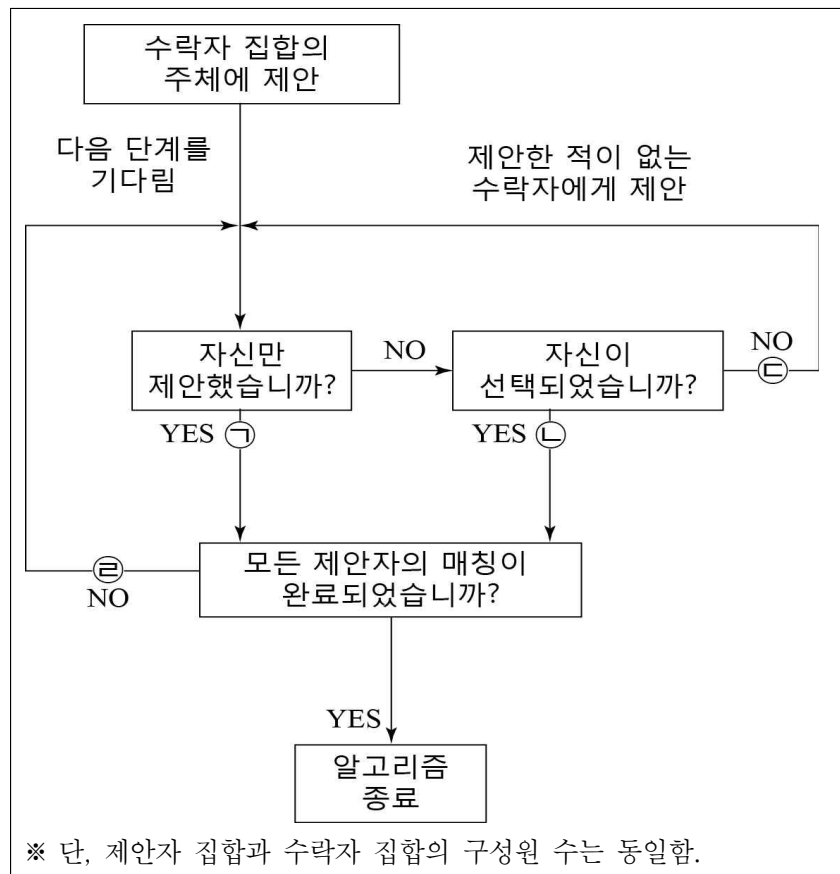
이와 달리 단방향 매칭에서는 선순위 거래 순환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재화를 배분한다. 알고리즘에 참가하는 경제 주체는 자신이 선호하는 재화를 선택하고, 매칭이 이루어지면 다른 제안자의 매칭 결과와 상관없이 알고리즘이 종료된다. 이 방법은 매칭이 이루어진 경제 주체가 더 이상 알고리즘의 다음 단계에 참가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잠정 수락 알고리즘보다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현실에서 시장을 설계할 때 양방향과 단방향 매칭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이 때에는 두 매칭을 함께 적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시장 설계 이론은 장기 교환 이식 제도, 주택 청약 제도 등에 활용되고 있어, 경제학이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용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22. 윗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장 제도의 장점과 한계
- ② 시장 설계의 방법과 특징
- ③ 시대에 따른 시장 설계의 특징
- ④ 시장의 성격에 따른 재화 배분 과정
- ⑤ 시장의 범위에 따른 알고리즘의 종류

23. 다음은 제안자의 입장에서 ‘잠정 수락 알고리즘’의 과정을 도식화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의 과정에서 수락자는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잠정적 매칭을 이루게 된다.
- ② 모든 제안자들이 ㉠의 과정을 통과하면 알고리즘을 종료할 수 있다.
- ③ ㉡에서 수락자는 제안자 중 가장 선호하는 사람과 매칭을 이룬다.
- ④ ㉢의 과정에서 수락자는 선호하는 제안자를 골라 추가 제안을 받는다.
- ⑤ 제안자와 수락자 구성원들이 일대일로 모두 매칭이 될 때까지 ㉢과 ㉣의 과정이 반복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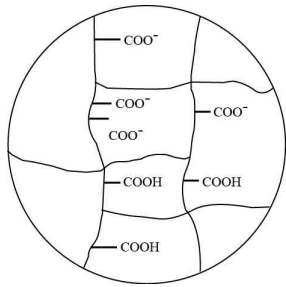
24. ㉠을 적용한 사례로 보기 어려운 것은?

- ① 결혼 정보 회사: 결혼 상대자를 구하는 남녀를 짝지어 줌.
- ② 인력 정보 시장: 구직자와 인력을 필요로 하는 고용자를 이어줌.
- ③ 창업 정보 회사: 식당을 창업하려는 창업주에게 식자재를 공급하는 업체를 연결해 줌.
- ④ 사회 복지 기관: 봉사 활동을 원하는 학생에게 자원 봉사를 필요로 하는 단체에 대한 정보를 줌.
- ⑤ 중고품 판매 사이트: 중고 물품을 판매하려는 판매자와 중고 물품을 구매하려는 사람을 연결해 줌.

[25~2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일반적으로 물질이 물을 흡수하는 원리는 모세관 현상과 연관이 있다. 이는 물이, 가는 관을 따라 올라오는 현상으로 작은 구멍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물을 잘 흡수할 수 있다. 펄프나 면은 작은 구멍이 많은 섬유질로 되어 있어 흡수력이 뛰어나지만 일정량 이상이 되면 물을 더 이상 흡수할 수도 없고 외부의 압력에 의해 물이 새기도 한다. 평소에 물을 바닥에 ㉠엎드리면 화장지로 닦아 내지만 닦아야 할 물의 양이 많아지면 화장지로도 부족한 것은 이것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고흡수성(高吸水性) 수지’이다.

㉡고흡수성 수지는 3차원 망상 구조, 즉 그물과 같은 물리적 형태를 갖추고 있다. 그물에 의해 형성된 구멍의 크기를 천연 펄프보다는 미세하게 만들 수 있어 자기 무게보다 수십 배의 양을 저장하는 천연 펄프나 천과는 달리 수천 배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구멍의 크기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최적의 흡수 속도와 흡수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고흡수성 수지의 구조]

위 그림과 같은 망상 구조는 고분자 중합*이라는 화학반응을 이용해 만든다. 먼저 분자들을 연결하여 긴 분자사슬을 만들고, 이 분자사슬의 중간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하는 분자사슬을 연결해 주면 그물 모양의 구조가 형성되는 것이다. 그물을 단단하게 설계한다면 어느 정도 압력이 있어도 물을 보유할 수 있다. 그런데 ㉢망상 구조만으로는 고흡수성 수지의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수 없다. 물질은 크게 물과 친한 성질인 친수성과 물을 멀리하는 성질인 소수성으로 나눌 수 있는데, 망상 구조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분자들은 친수성 작용기를 가진 것들을 사용해야 한다. 주로 히드록시기(-OH)나 카르복시기(-COOH)와 같이 이온화가 쉽거나 물과의 수소결합이 가능한 작용기를 갖춘 분자들을 중합하는 방법으로 망상 구조를 만든다. 그리고 친수성인 작용기들은 그물 결합 내에서 서로 전기적 반발력이 있는데, 이로 인해 결합 내의 공간이 확대되어 많은 양의 물을 흡수하게 된다. 이런 과정으로 고흡수성 수지는 자기 무게의 1,000배 이상을 흡수한다. 여기에 이온화 경향이 더 높은 작용기를 사용할 경우 물뿐만 아니라 염도가 있는 액체에도 우수한 흡수력을 나타내게 된다.

* 중합: 단위체가 두 개 이상 결합하여 큰 분자량의 화합물로 되는 일. ≡ 중합 반응.

25. 밑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모세관 현상은 물의 흡수력을 감소시킨다.
- ② 친수성 작용기를 가진 물질은 망상 구조를 가진다.
- ③ 분자 사이에 공간이 넓어지면 전기적 반발력이 생긴다.
- ④ 고흡수성 수지는 분자들이 그물 모양으로 연결되어 있다.
- ⑤ 천연 펄프로 만들어진 종이는 압력을 견디는 힘이 강하다.

26. 밑글을 발표 수업의 원고라 할 때, 발표 수업을 위한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제목: 고흡수성 수지에 대하여

- 대상: 3학년 ○반 학생들
- 발표 내용 및 방법
 - 시각 자료를 통해 ㉠의 구조를 보여준다. ①
 - ㉡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제시한다. ②
 - ㉢이 ㉡의 형태를 지녀야 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③
 - 사례를 들어 ㉠의 활용 분야를 자세히 보여준다. ④
 - ㉢의 특성을 과학적 원리로 설명한다. ⑤

27. 밑글을 읽은 학생들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장마철에 습기를 제거하려고 구입한 제습제에는 고흡수성 수지가 들어 있을 거야.
- ② 친수성 작용기를 포함한 고분자 물질을 선박의 표면에 바르면 부식을 방지할 수 있겠어.
- ③ 아기들이 착용하는 기저귀에 고흡수성 수지를 사용하면 최적의 흡수력을 얻을 수 있겠어.
- ④ 망상 구조가 단단하게 설계된 꽃꽂이용 밀판은 더 많은 수분을 꽃에 제공할 수 있을 거야.
- ⑤ 물기 제거를 위한 청소용 스펀지는 중합 반응으로 만들어진 고분자 물질로 제작할 수 있겠어.

28. <보기>는 ㉠과 관련된 설명이다. 사례로 든 두 단어의 관계가 ‘유의 관계’가 아닌 것은?

<보 기>

쓰이는 상황이 제한적이더라도 둘 이상의 단어가 문장에서 유사한 의미를 지닐 때, 이 두 단어를 유의 관계에 있다고 한다. ㉠의 ‘엎드리면’은 ‘쏟으면’으로 바꿔 쓸 수 있다.

- ① 철수는 신호를 (보았다/지켰다).
- ② 영희는 철길을 (넘었다/진냈다).
- ③ 형이 나에게 사과를 (주었다/진냈다).
- ④ 나는 어젯밤에 전구를 (갈았다/바꿨다).
- ⑤ 날씨가 더워서 찬물을 (먹었다/마셨다).

[29~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무릇 책을 읽는 자는 반드시 단정히 두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앉아야 하며, 공경히 책을 대하여 온전한 마음으로 뜻을 다하고, 정순한 생각으로 익숙히 읽고 깊게 생각하여 깊은 의취를 이해하고 구절마다 반드시 실천할 방법을 구해야 하니, 만일 입으로만 읽고 마음으로 본받지 않아서 몸으로 실행하지 않으면, 책은 책일 뿐이고 나는 나일 뿐이니,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먼저 『소학』을 읽어서, 아버이를 섬기고 형을 공경하며, 임금에게 충성하고, 어른을 공경하며, 스승을 높이고 벼를 친히 하는 도리에 대해 일일이 자세히 익혀서 그것을 힘써 실행해야 할 것이다. 다음에 『대학』 및 『훈문』을 읽어서, 이치를 궁구하고 마음을 바르게 하며, 몸을 닦고 남을 다스리는 도리에 대해 하나 하나 참으로 알아서 성실히 실천해야 할 것이다.

(중략)

이상의 오서와 오경을 돌려가며 익숙히 읽음에, 이해하기를 마치지 않아서 뜻과 이치로 하여금 날마다 밝아지게 하고, 송나라의 선현들이 지은 책인 『근사록』, 『가례』, 『심경』, 『이정전서』, 『주자대전』, 어류(語類) 및 기타 성리설 같은 것을, 마땅히 틈틈이 정독해서 뜻과 이치로 하여금 항상 내 마음에 젖어 들어 어느 때고 끊어지지 않게 해야 하고, 남은 여가에 또한 역사책을 읽어 고금을 통하고 사물의 변화에 통달해서 식견을 신장시켜야 할 것이다. 이단 잡류의 바르지 않은 책이라면 잠시라도 펼쳐 보아서는 안 된다.

대체로 책을 읽음에, 반드시 한 책을 숙독하고 뜻과 취지를 모두 깨달아서 관통해서 의심을 없앤 다음에, 다시 다른 책을 읽어야 하고, 많이 읽기를 탐하고 얻기를 힘써서 조금하게 섭렵하지 말아야 한다.

- 이이, 「격몽요결」 -

29. 윗글의 필자인 'A'와 <보기>의 필자인 'B'의 독서 태도를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 기>

나는 대학 졸업 후 회사 생활에 유용한 실용 도서를 집중해서 읽었지만 이런 독서는 회사 생활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다양한 인간 군상의 삶이 펼쳐진 대하소설을 찾아 읽었다. 대하소설을 읽으니 사회와 다양한 인간형을 이해하게 되어, 회사 동료들과의 원만한 관계에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 ① A는 B에 비해 재미와 흥미를 위한 독서를 선호하는군.
- ② A는 B에 비해 최신의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독서를 강조하는군.
- ③ A는 B와 달리 관심 분야의 정보를 얻기 위한 독서에 초점을 맞추고 있군.
- ④ B는 A에 비해 생활의 문제와 관련된 독서를 중시하고 있군.
- ⑤ B는 A에 비해 다양한 분야의 식견을 넓히는 독서를 주장하는군.

30. 윗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독서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좋은 책을 선정해서 읽어야 한다.
- ② 전체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며 읽어야 한다.
- ③ 책을 정독하여 깨달은 것을 내면화해야 한다.
- ④ 책에 담긴 뜻과 취지를 완전히 깨우쳐야 한다.
- ⑤ 바른 자세를 취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읽어야 한다.

[31~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공명은 조조에게 신세를 진 적이 있는 관공이 혹시 조조를 놓아주지 않을까 염려한다. 관공은 목숨을 걸고 조조를 꼭 잡아오겠다는 군령장을 쓰고 조조를 잡으러 떠난다. 쫓기던 조조는 화용도에서 관공에게 잡히는데, 조조는 과거 관공의 목숨을 살려준 적이 있었다.

[아니리]

칼을 번쩍 빼어 들고 조조 앞으로 바싹 달려드니 조조가 깜짝 놀래 목을 딱 움추리니 관공이 빙긋이 웃으며,

“웃깃으로 내 청룡도를 피한단 말이냐.”

“글쎄요, 그러기에 장군님은 제발 가까이 서지 마옵소서.”

“네 말이 날다려 유정타 허며 어찌 가까이 서지는 말라느고.”

“글쎄요, 장군님은 유정하나 청룡도는 무정하여 고정을 베일까 염려로소이다.”

관공이 웃으시며 조조의 지기(志氣)를 떠보려고 청룡도를 높이 들어 조조 목을 베어낼 듯,

[A] “검여두이혼인(劍與頭而婚姻)하면 생기자유혈(生其子流血)이라. 네 목에 피를 내어 내 칼을 한 번 씻으라 함이로다.”

목을 넘겨 땅을 킁 찌르니 조조 정신 아찔하여 군사들을 돌아보며,

“야들야 청룡도가 잘 든다더니 과연 그 말이 맞구나. 아프잖게 잘 도려 가신다. 내 목 있나 좀 바라.”

관공이 웃으시며,

“목 없으면 죽었거늘 죽은 조조도 말을 하느냐.”

“예. 그는 정신이 종잡기로 말은 겨우 하거니와 혼은 벌써 피난간 지 오래로소이다.”

관공은 본래 조조의 은혜를 입은지라 조조를 놓을까 말까 망설이며 결정을 못하고 있던 차에,

[자진모리]

주창이 여짜오되,

“장군님은 어찌하야 첫 칼에 베일 조조 살려 두려 하시는지. 옛 일을 모르시오. 강동의 모진 범여 함양을 파한 후 홍문연 앓은 패공 무심히 거저 놓아 항장(項將)의 날랜 칼이 쓸 곳이 없었고* 계명산 추야월에 장량(張良)의 옥통소 한 곡조 슬피 불어 팔천병 흘었으니 오강풍랑 자문사(自刎死)라.* 하물며 조조는 처세에 능하고, 난세에 간웅이라. 장군이 만일 놓아주면 소장이 잡으리다.”

별안간 달려들어 조조 먹살을 꼭 잡으며,

“왕의 목숨이 주창의 손에 달렸도다. 내 손에 달린 목숨 네

어디로 피할소냐.”

넙다 잡아끄니 조조 놀래 벌벌 떨며,

“여보 주 별감(周別監) 술 많이 받아 드릴 테니 제발 날 좀 놔주세요.”

관공이 웃으시며,

“아서라 아서라 그리 마라. 어디 차마 보겠느냐. 목숨일랑 끊지 말고 사로잡아 가자.”

좌우에 제장군졸을 한편으로 갈라 세우고 관공이 말머리를 둘러실 제 조조가 급히 말을 타고 정신없이 달아난지라. 관공이 거짓 분노하며,

“내 분부도 듣지 않고 제 마음대로 달아나니 그 죄로 죽어봐라.”

[중모리]

조조 듣고 말 아래 뚝 떨어지니 장졸들이 황겁하여 장군 말 아래 가 두 손 합장 비는디 사람의 인륜에 못 볼래라.

“비나이다 비나이다 장군님전 비나이다. 살려주오 살려주오 우리 승상 살려주오. 우리 승상 살려주면 높고 높은 장군 은혜 본국 천리 돌아가서 호호 만세 하오리다.”

조조 듣고 기가 막혀,

“우지 마라 우지 마라. 나 죽기는 설잖으나 가냘픈 너희 모습 눈뜨고 볼 수가 없구나. 풍파에 곤한 신세 고향 가는 길에 장군님을 만났으니 가냘픈 우리 모습 설마 살려 주시제 죽일소냐.”

[B]

관공이 꾸짖어 왈,

“이 놈 조조 들어보아라. 내 너를 잡으러 올 때, 군령장에 다짐을 두었으니 그대 놓고 나 죽기는 그 아니 원통할까.”

조조가 비는 말이,

“현덕과 공명 선생이 장군님 아시기를 오른팔로 믿사오니 초수(草獸)같은 이 몸 조조 아니 잡아 가드래도 죽이지는 않으리다. 장군님 타신 말과 청룡도에 나 죽기는 그 아니 원통하오.”

관공이 감심하여 조조를 놓아주고 말을 돌려 돌아가니 세인이 노래를 허되, ‘슬겁구나, 슬겁구나. 화용도 좁은 길에 조조가 살아가니 천고에 늪름한 대장부는 관공인가 하노라.’

[아니리]

관공은 본국으로 돌아와 공명전 앞드려 왈,

“용렬(庸劣)한 관모는 조조를 잡고도 놓아 주었사오니 의율시행(依律施行) 하옵소서.”

공명이 내려와 관공의 손을 잡고

“조조는 죽일 사람이 아닌 고로 장군을 그 곳에 보냈으니 그 일을 뉘 알리요.”

[엇중모리]

관공은 화용도 좁은 길에 조조를 살려주니 인후(仁厚)하신 관공 ㉠이름 천추에 빛나더라. 그 뒤야 뉘가 알리. 더질 더질.

— 작자 미상, 「적벽가(赤壁歌)」 —

* 강동의~없었고: 한나라 항우가 유방을 죽이지 않고 살려 준 고사.

* 계명산~자문사라: 한나라의 전략가인 장량이 고도의 심리전으로 초나라 군대를 해산시켜 항우를 자결에 이르게 한 고사.

31. 윗글을 연극으로 만든다고 할 때, 홍보 문구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옥망의 뒷에 걸려 쓰러지며
- ② 의리를 지키려 군율을 어기고
- ③ 백성들의 울음소리 하늘에 닿아
- ④ 패잔병의 슬픈 노래 전장을 울리며
- ⑤ 권력 투쟁에서 밀려 쓸쓸히 사라지고

32.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는 인물의 과장된 행동이 나타나 있다.
- ② [A]는 인물의 행동을 회화화하여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 ③ [B]는 동일한 어구가 반복되어 율격을 형성하고 있다.
- ④ [A]와 달리 [B]에는 상황에 대한 서술자의 주관적인 평가가 드러나 있다.
- ⑤ [A]와 [B]에는 모두 관습적 표현을 통한 배경 묘사가 나타나 있다.

33. 다음은 윗글을 읽은 학생이 쓴 ‘작품 속 인물 탐구’에 대한 보고서이다. 탐구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적벽가 인물 탐구〉	
 〈관공〉	○ ‘조조’와 대면하여 호통을 치는 모습에서 위엄 있는 장군의 면모가 드러난다. …… ① ○ ‘조조’에게 도움 받은 과거를 잊지 않고 ‘조조’를 놓아주는 모습에서 인간적인 면모가 드러난다. …………… ②
 〈조조〉	○ 궁지에 몰려서도 자신의 장졸들에게 권위를 내세우는 모습에서 위선적인 면모가 드러난다. …………… ③ ○ 살길을 도모하기 위해 상대 적장에게 빌고 있는 모습에서 비굴한 패장의 면모가 드러난다. …………… ④
 〈주창〉	○ 망설이는 ‘관공’과 달리 적장을 제거하려는 단호한 모습에서 원칙을 고수하려는 면모가 드러난다. …………… ⑤

34. ㉠에 어울리는 한자 성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유방백세(流芳百世)
- ② 학수고대(鶴首苦待)
- ③ 금의환향(錦衣還鄉)
- ④ 타산지석(他山之石)
- ⑤ 상전벽해(桑田碧海)

[35~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명경(明鏡)에 티 써거던 갑주고 닳글 줄
아희 어른 업시 다 밋쳐 알건마는
갑 업시 닳글 명덕(明德)을 닳글 줄을 모르느다.

<제1수>

성의관(誠意關)* 도라드려 팔덕문(八德門) 바라보니
크나큰 혼길이 넓고도 곳다마는
엇지타 진일 행인(盡日行人)이 오도가도 아닌 게오.

<제2수>

구인산(九仞山)* 긴 솔 배혀 제세주(濟世舟)를 무어* 닌야
길 닐흔 행인(行人)을 다 건느려 헛였더니
사공도 무상(無狀)햏야* 모강두(暮江頭)*에 보렛느다.

<제3수>

— 박인로, 「자경(自警)」—

* 성의관: 뜻을 정성스럽게 하는 문.

* 구인산: 대덕(大德)으로 비유되는 높은 산.

* 무어: 만들어.

* 무상햏야: 변변치 못하여.

* 모강두: 저무는 강가.

35.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보 기> —

- ㄱ. 계절의 변화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ㄴ. 공간의 이동에 따른 화자의 의식 변화가 나타나 있다.
- ㄷ. 상징적 시어를 사용하여 화자가 추구하는 바를 드러내고 있다.
- ㄹ. 대비적인 상황을 제시하여 현실의 부정적인 면을 드러내고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36.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한 내용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제목의 의미

「자경(自警)」은 자기의 능력이 미치지 못함에 대한 자탄으로, 개인의 수신(修身)을 강조함.

작가의 창작 의도

자신을 반성할 줄 모르고 덕행을 멀리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유교적 수양을 권함.

단어의 의미

- 팔덕문(八德門): 팔덕을 갖춘 문. ‘팔덕’은 유교의 윤리 강령. 세상 사람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正道(正道)를 의미함.
- 제세주(濟世舟): 세상을 구제할 배. 인간의 도리가 실현되는 세상을 만들고 싶은 작가의 포부가 담겨 있음.

- ① <제1수>에서 ‘명덕’을 닳는 것은 인간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도리의 실천을 위해 필요한 것이다.
- ② <제1수>에서 작가는 덕을 실천하지 않는 현실에 대해 안타까워하고 있다.
- ③ <제2수>에서 ‘크나큰 혼길’은 덕을 실천하기 위해서 ‘행인’이 만나는 장애물을 의미한다.
- ④ <제3수>에서 ‘행인’을 건너게 하려는 화자를 통해 작가가 지향하는 삶의 태도가 드러난다.
- ⑤ <제3수>에서 작가는 세상을 구제하고 싶은 포부에 비해 자신의 능력이 부족함을 한탄하고 있다.

[37~3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하루는 종로를 지나다가 박문서관에 들러 잡지를 보고 있었다. 사 불 밀천이 없으니책방에 가서 이렇게 공짜로 보기가 일쑤다. 조그만 책방에서 이런 짓을 하다가는 담박 쫓겨날 것이 지마는 큰 데는 사람이 우굴우굴하여 눈에 덜 뜨인다. 옆에 섰던 중학생 두 놈이 책을 뒤적거리면서 얘기를 한다.

“애 이 책이 어때?”

힐끗 곁눈으로 보니 그 ‘化學의 徹底的研究(화학의 철저적 연구)’라는 책이다. 무어니무어니 해도 나와 관계 있는 사람의 책이다. 하물며 내가 경양하여 마지않는 김가성 교수의 저서임에랴! 먹는 것 없이 나는 그 책이 좋다는 평이 내리고 이어서 두 말없이 사 가기를 원했다. 원했을 뿐더러 조바심까지 났다.

그런데 이놈의 대답이 꽤썸하기 짝이 없다.

“틀렸어, 왜말루 쓴 그…… 무슨 책이더라?…… 하여튼 무슨 화학 연구야. 꼭 그대론 거 머. 그래두 볼라거든 내 걸 갖다 봐.”

적어도 신문에까지 난 사계의 권위자가 쓴 책이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하니 이따위 모욕적 언사를 감히 하는 학생놈이 아니꼽기 그지없다. 그렇다고 나 같은 것이 무어라고 하자니 알아야 편잔도 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보고 있노라니까 행하고 내던지고 나가 버렸다. 자세히 보니 그 책뿐 아니라 옆에는 ‘金可成

著(김가성 저)’가 세 가지나 더 있다. 꼬마 점원이 무어라고 중얼거리면서 책을 바로잡는 것을 보고 나도 행하고 나와 버렸다.

바로 추석날이다. 신문사에 불일이 있어 들렀더니 세 사람이 둘러앉아 잡담을 하고 있다. 한 사람은 기자요 두 사람은 손님이었다.

“가성이란 놈, 죽일 놈이야. 지난 초열흘날 결혼했는데 청첩장 하나 없잖아. 그 며칠 전에 길에서 만났는데두 아무 말 없구, 관호한테 물으니 동창이라고 부른 건 두민이밖에 없대.”

“두민인 의살해서 돈냥 벌었겠다, 그럴 법하지 뭐야.”

“고거 큰일났어. 뽕질뽕질 돌아만 땡기구…… 게다가 제간엔 큰 권위자루 자처한다지.”

“흥, 왜놈덕을 단단히 봤지, 무호동중에 이작호(無虎洞中狸作虎)*야.”

“일종의 새치기지.”

“새치기의 권위자가 하하…….”

“㉠새치길수록 꺾데기는 점잖구 한다는 소리는 크거든.”

“그 무슨 책인가 한 권 내구 꽤 벌었다지, 더 점잖아지겠군.”

모두들 가성의 진짜 동창인 모양이다.

—가성이가 그럴 리 있나? 그 일람척기하던 가성이가, 다른 가성이겠지.

나는 변명하고 싶었다. 적어도 내가 아는 김가성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소이연을 푹푹히 가르쳐 주고 싶었으나 아는 것이 없는데다가 말주변까지 없으니 가슴만 답답하였다.

새파란 청춘에 벌써 학계의 권위자가 되었으니 그의 앞날은 어찌면 아인슈타인쯤 될지도 모른다. 못되어도 일본의 유가와(湯川) 따위는 어림도 없다고 은근히 기대하고 혼자 좋아서 어깨를 으쓱해 왔는데 그럴 리가 있나? 다른 가성이겠지.

하루는 옆집 문간방에서 자취하는 S대학생이 도끼 빌리러 왔기에,

“김가성 교수님 잘 계세요?”

하고 물었더니,

“네? 어떻게 아십니까?”

하고 반문하였다. 나는 그가 어려서 일람척기하는 신동이었던 것과 제국대학을 나오고 미국 가서 깊이 연구한 학자요 권위자니 크게 이루는 바가 있으리라고 자랑삼아 선전삼아 퍼부었다.

“글쎄요…… 뜬소문에는 다섯 가지 위원을 겸하고 있다니까 그 런지는 몰라두…… 참 요새는 또 어느 무역회사 중역이 됐다나 부던데요.”

학생의 달갑지 않은 대답과는 달리 나는 여기서 실로 삼탄(三嘆)하였다. 교수 자리는 자리대로 차지하고 돈은 돈대로 벌고 행세는 행세대로 하고—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푸르다더니 과연 그런 말이 아니다.

“잘 살구 출세하구 더 바랄 게 무에 있어요, 과연 모두들 기대하던 대루 됐군.”

내가 이렇게 응수하니,

“그렇지만 사람이 어디…….”

이렇게 말미를 떼는가 했더니 멍하니 건너편 산꼭대기를 바라보다가 일어서 도끼를 쥐고 나가 버렸다. 나 같은 신문배달 무식쟁이를 상대로 얘기해 보았자 얘기가 안되리라고 생각했던 모양이다.

별놈이 별소리를 다해도 내가 경애하는 김가성 교수는 일인

십역이라도 능히 감당할 천재요, 그 지식으로 말하면 고금과 동서를 전부는 몰라도 반쯤은 통했으리라 믿는 까닭에 그에게 대한 경애나 신뢰가 털끝만치라도 동요할 리 없다. 그는 단연 거리에 굴러다니는 어중이떠중이와는 유가 다르다.

그 후 나는 그의 소식을 듣지 못하였다. 아마 지금쯤은 직함도 더 늘고 저서도 부쩍 많아져서 더욱더 접근하기 어렵게 되었으리라.

김가성론을 마친다. 이로써 내가 김가성 교수와 어떤 관계가 있다는 것이 분명하게 되었으니 나도 조금 잘나질까 남몰래 기대하고 있다. 말꼬리에 붙어서 천 리를 가려는 파리의 심사라고 험하지 말기를 바란다.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우리 조상의 그 알뜰한 전통을 낸들 잊을까보나.

— 김성한, 「김가성론」 —

* 무호동중에 이작호(無虎洞中狸作虎): 뛰어난 사람이 없는 곳에서 보잘것없는 사람이 득세함.

37. 윗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 ① 현학적 표현으로 이상적인 삶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 ② 장면에 따라 서술자를 교체하여 사건을 다양한 관점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③ 중심인물의 행적을 요약적으로 서술하여 성격 변화의 원인을 드러내고 있다.
- ④ 현재와 과거의 사건을 교차 서술하여 사건 간의 인과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 ⑤ 삽화적 사건을 나열하며 인물과 사건에 대한 서술자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38. 등장인물을 중심으로 윗글을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나’의 어수룩함에 대비되어 ‘김가성’의 숙물성이 부각된다.
- ② ‘김가성’은 ‘나’를 통해 자신의 숨겨진 모습을 세상에 알린다.
- ③ ‘김가성’에 대한 ‘나’와 타인의 평가는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
- ④ ‘중학생’, ‘세 사람’, ‘S대학생’을 통해 ‘김가성’의 위선적 실체가 드러난다.
- ⑤ 일련의 사건을 겪으면서도 ‘김가성’에 대한 ‘나’의 생각은 크게 바뀌지 않는다.

39. ㉠을 통해 판단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한 분야만 파고드는 열정이 필요하다.
- ② 사람은 겉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 ③ 전문 분야에서는 사람들의 평판이 중요하다.
- ④ 내적 성숙과 함께 외적 품위도 갖추어야 한다.
- ⑤ 학식이 높은 사람은 저절로 드러나게 마련이다.

[40~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잃어버렸습니다.

무얼 어디다 잃었는지 몰라

두 손이 주머니를 더듬어

길에 나아갑니다.

돌과 돌과 돌이 끝없이 연달아

길은 돌담을 끼고 갑니다.

담은 쇠문을 굳게 닫아

길 위에 긴 그림자를 드리우고

길은 아침에서 저녁으로

저녁에서 아침으로 통했습니다.

돌담을 더듬어 눈물짓다

쳐다보면 하늘은 부끄럽게 푸릅니다.

풀 한 포기 없는 이 길을 걷는 것은

담 저쪽에 내가 남아 있는 까닭이고,

내가 사는 것은, 다만,

잃은 것을 찾는 까닭입니다.

- 윤동주, 「길」 -

(나)

청계천 7가 골동품 가게에서

나는 어느 황소 목에 걸렸던 ㉠방울을

하나 샀다.

그 영롱한 소리의 방울을 딸랑거리던

소는 이미 이승의 짐승이 아니지만,

나는 ㉡소를 몰고 여름 해 질 녘 하산하던

그날의 소년이 되어, 배고픈 저녁 연기 피어오르는

마을로 터덜터덜 걸어 내려왔다.

장사치들의 흥정이 떠들썩한 문명의

골목에선 지금, 삼륜차가 울려 대는 ㉢경적이

저자바닥에 다가운데

내가 몰고 가는 소의 딸랑이는 ㉣방울소리는

돌담 너머 옥분이네 안방에

들릴까 말까,

사립문 밖에 나와 날 기다리며 섰을

누나의 귀에는 들릴까 말까.

- 이수익, 「방울소리」 -

40. (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화자의 시선 이동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② 특정 소재에 주목하여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③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하여 정서적으로 교감하고 있다.
- ④ 어조의 변화를 통해서 정적인 분위기를 강조하고 있다.
- ⑤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대상을 생동감 있게 드러내고 있다.

41. <보기>는 (가)에 대한 수업의 일부이다. 학생들의 대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선생님: 1연에서 화자가 ‘길’로 나아가는 것은 잃어버린 자아를 찾기 위한 행위를 의미합니다. 화자는 본질적 자아를 회복하고 싶어 하는 것이지요. 그럼, 2연부터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 발표해 볼까요?

- ① 2연에서 ‘돌과 돌과 돌이 끝없이 연달아’ 있다는 것은 잃어버린 자아를 찾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 ② 3연에서 돌담에 ‘쇠문’이 굳게 닫혀 있다는 것은 화자가 본질적 자아를 찾는 과정이 쉽지 않다는 것을 뜻합니다.
- ③ 4연에서 길이 ‘아침에서 저녁으로’, ‘저녁에서 아침으로’ 통한다는 것은 잃어버린 자아를 찾기 위한 화자의 노력이 지속적인 의미를 의미합니다.
- ④ 5연에서 화자는 본질적 자아를 찾지 못해 ‘눈물’지으며 자신에게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 ⑤ 6연, 7연에서 화자는 ‘풀 한 포기 없는’ 상황 속에서도 잃어버린 자아를 찾는 것이 살아가는 이유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42. ㉠~㉣을 중심으로 (나)를 이해한 것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화자를 유년 시절의 시간과 공간으로 유도하는 기능을 한다.
- ② ㉡은 ㉠에 의해 연상된 것으로 화자의 소박하고 평화롭던 시절을 환기한다.
- ③ ㉢은 ㉣과 대비되어 현대 문명의 부정적 이미지를 부각시킨다.
- ④ ㉣은 화자가 소중한 이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를 환기한다.
- ⑤ ㉣은 ㉡을 통해 깨닫게 된 자연과 인간사의 부조화를 상징한다.

[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엄마 인희는 50대의 가정주부이다. 남편은 월급 의사이고, 시어머니는 중증 치매 환자이며, 아들 정수는 삼수생이며 딸 연수는 직장인이다. 가족의 뒤치다꺼리를 하며 살아온 그녀는 오줌소태 증세로 병원을 찾는데, 자궁암 말기라는 결과가 나온다. 수술 이후에도 병세가 악화되지만 하자, 엄마는 자신이 죽으면 시어머니를 돌봐 줄 사람도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시어머니의 목을 조르다가 이내 포기한다.

S# 51. 화장실 안

엄마, 할머니(변기 위에 앉아 있고)에게 새 속옷을 갈아입혀 주고 있다. 윗옷까지 마저 다 갈아입혀 주고.

엄마 (할머니 눈을 보며, 맘 아픈 걸 참고) 좋아요?

할머니

엄마 (쪼그려 앉으며) 개운하지?

할머니 (엄마의 눈을 보고 있다. 정신이 들어왔는지 엄마 맘을 알 것 같다.)

엄마 (눈물을 참고, 대견해하며) 이렇게 입으니까 꼭 새색시 같네. (할머니 손을 잡고, 차마 못 보고) 어머니, 나 먼저 가 있을게, 빨리 와. (다시 할머니 눈을 보며) 싸우다 정든다고 나 어머니랑 정 많이 들었네. 친정어머니 먼저 가시고 애들 애비 공부한다고 객지 생활 할 때, 애들두 없구, 외롭구 그럴 때도..... 어머니 내 옆에 있었는데..... 나 밋다고 해도 가끔 나한테 당신이 좋아하시는 거 아꼈다가 주곤 하셨는데..... 어머니, 이젠 기억 하나두 안 나지?

연수(E) 엄마?

할머니 (갑자기 버럭, 밖에 대고) 저리 가, 이년아!

엄마 (놀라, 할머니를 보고 정신이 드는가 싶어 눈물이 난다.) 어머니, 아까 미안해요. 내 맘 알죠?

할머니 (눈물이 나는 걸 참고)

엄마 (손을 잡고, 울며) 이런 말 하는 거 아닌데..... 정신 드실 때 허라도 깨물어, 나 따라와요. 아범이랑 애들 고생시키지 말고, 기다릴게. (손을 잡아 얼굴에 대며 울고) 아이고, 어머니.....

S# 67. 차 안

엄마 (장난처럼, 밝게) 정수야, 나 누구야?

정수 (고개를 들고 눈을 부릅떠 눈물을 참고, 아이처럼) 엄마.

엄마 한 번만 더 불러 봐.

정수 (목이 메어) 엄.....마.

엄마 (눈가가 그렇게) 정수야, 너..... 다 잊어버려두, 엄마 얼굴도 웃음도 다 잊어버려두..... 니가 이 엄마 뱃속에서 나온 건 잊으면 안 돼.

정수 (힘들게 끄덕이고)

엄마 (손가락에 낀 반지를 빼서, 정수 손에 쥐어 주고) 이거, 니 마누라 줘.

S# 73. 침실

조금은 어두운, 그러나 따뜻해 보이는. 엄마, 정철, 조금은 낯설고 멧쩍게 침대에 걸터앉아 있다.

엄마 당신은..... 나 없이두 괜찮지? —————
정철 (보면)
엄마 잔소리도 안 하고 좋지, 뭐. [C]
정철 (고개 돌리며) 싫어.
엄마 나..... 보고 싶을 거는 같애?
정철 (고개를 끄덕인다.) —————
엄마 언제? 어느 때?
정철다.
엄마 다 언제?
정철 아침에 출근하려고 넥타이 맬 때.
엄마 (안타까운 맘. 보며)또?
정철 (고개를 돌려, 눈물을 참으며) 맛있는 된장국 먹을 때.
엄마 또?
정철 맛있는 된장국 먹을 때.
엄마 또?
정철 술 먹을 때, 술 깼 때, 잠자리 볼 때, 잘 때, 잠 깼 때, 잔소리 듣고 싶을 때, 어머니 망령 부릴 때, 연수 시집갈 때, 정수 대학 갈 때, 그놈 졸업할 때, 설날 지짐이 할 때, 추석날 송편 빚을 때, 아플 때, 외로울 때. —————
엄마 (눈물이 그렇게, 괜히 옷설텐 만지며 둘레를 두리번거리며) 당신, 빨리 와. 나 심심하지 않게. (눈물이 주룩 흐르고)
정철 (엄마를 안고, 눈물 흘리고)
엄마 (울며 웃으며) 여보, 나 이쁘면 뽀뽀나 한번 해 줘라.
정철 (엄마 얼굴을 손으로 안고, 입을 맞춰 주고)
두 사람, 다시 안고 울고.
정철 고마웠다.

S# 74.

1. 정원에서 돌 고르는 행복한 얼굴을 한 엄마와 정철. —————
2. 화장실에서 정철에게 등목을 해 주는 엄마.
3. 서로 밥을 먹여 주는 엄마와 정철. [E]
4. 거실 소파에서 엄마, 정철 무릎에 누워 있다. 정철, 재미난 책을 읽어 주고, 엄마는 재미있는지 환하게 웃고. —————

S# 76. 침실

침실 가득 밝은 햇살이 들어오고, 엄마는 정철의 팔에 안겨 깊은 잠이 들어 있다. 정철은 물기 가득한 눈으로 엄마를 안고 있다.

정철 (엄마의 죽음을 느낀다, 엄마를 보지 않고) 여보.

엄마

정철 여보.....

엄마

정철 인희야.

그러나 엄마는 대답 없고,

정철, 이를 앙다물고 우는데, 눈물 뚝 떨어져 엄마의 뺨 위로 흐른다.

엄마, 너무도 편안하게 깊이 잠들어 있고,

그런 두 사람 보여 주며 카메라 멀어진다.

— 노희경,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 —

43.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조명이 인물의 행동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 ② 소도구를 활용하여 인물의 성격을 암시하고 있다.
- ③ 극적 반전을 통해 인물 간의 갈등을 심화하고 있다.
- ④ 효과음을 삽입하여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고하고 있다.
- ⑤ 인물 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장면이 구성되고 있다.

44. 윗글을 영화로 만든다고 할 때, 장면에 맞는 촬영 방법과 효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A]는 ‘엄마’의 얼굴을 클로즈업하여 ‘할머니’에 대한 죄책감, 안타까움 등의 복합적 심정이 담긴 표정을 잘 살렸으면 좋겠어.
- ② [B]는 애써 웃으려는 ‘엄마’와 슬픔을 참는 ‘정수’의 모습을 번갈아 카메라로 잡아 이별을 앞둔 모자간의 아픈 심리를 드러내면 좋겠어.
- ③ [C]는 ‘정철’에 대한 ‘엄마’의 바람을 내레이션으로 처리하여 ‘정철’이 ‘엄마’의 부재를 담담하게 받아들이도록 유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어.
- ④ [D]는 가족들의 일상을 스쳐 지나가듯 삽입하여 이별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정철’의 심정이 부각되도록 하면 좋겠어.
- ⑤ [E]는 ‘엄마’와 ‘정철’의 일상적 장면을 연속적으로 이어 붙여 이별을 맞는 두 사람의 애뜻함을 보여주면 좋겠어.

45. <보기>를 ‘S# 76’으로 바꿨을 때, 고려했을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침실 가득 눈부신 햇살이 밀려들었다. 아침이었다. 햇살은 마치 무슨 축복인 양 쏟아져 들어와 잠든 인희 씨의 하얀 얼굴을 비춰 주고 있었다. 정철은 잠에서 깨자마자 조용히 아내를 불러 보았다.

“여보.”

아내를 안고 있는 오른쪽 팔에서는 이미 온기가 느껴지지 않는다. 그는 벌떡 몸을 일으켰다.

“인희야!”

정철은 오열하며 아내의 이름을 불렀다.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계속 그의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는 서서히 몸을 굽혀 식어 버린 아내의 몸을 부서져라 껴안아 주었다. 그녀의 입술에 입 맞추며 그렇게 언제까지, 언제까지 끌어안고 있었다. 어느 곁에 고인 슬픔인지, 깊이 잠든 인희 씨의 눈에도 차디찬 물기가 서려 있었다.

- ① ‘정철’의 심리와 조용하는 배경으로 교체한다.
- ② ‘정철’과 ‘인희’가 서로 화해하는 장면을 삽입한다.
- ③ 죽음을 맞는 ‘인희’의 고통을 극대화하여 보여준다.
- ④ 삶에 미련을 갖는 ‘인희’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묘사한다.
- ⑤ ‘인희’를 보내는 ‘정철’의 슬픔을 최대한 절제하여 보여준다.

※ 확인 사항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